

# 광주 초·중고 특수교사 턱없이 부족

## 확보율 절반 그쳐... 장애학생 교육 부실 우려

### 교과부 증원 난색... 기간제 교사 배치하기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특수교사 수가 법정정원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교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고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 교육법)에서 정한 광주지역 초·중·고 특수학급(1243개 학급·재학생 1207명)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301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교사는 172명으로, 교사 확보율이 57.1%에 그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교사 법정정

원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 놓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38개교에 56개 특수학급(재학생 301명)이 편성돼 있어 장애인 교육법상 법정교사수 75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중인 교사는 40명뿐이다.

고교도 17개교, 42개 특수학급(291명)이 있어 특수교사 72명이 필요한데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법정 정원 외 기간제 교사 26명(중학교 14명·고교 12명)을 따로 배치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136개교에 140개 특수학급이 편성돼 학생 615명이 재학중이다. 장애 학생수를 감안하면 법정정원은 154명이다. 그럼에도, 현재 확보한 교사는 106명에 머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7~8명(법정 인원은 4명)에 달하는 일부 학교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증설 계획이 있지만 교사수가 부족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에 크게 미달한 것은 교과부가 정원을 늘리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교과부는 일률적으로 공무원 정원의 동결을 고수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들어 특수교사 정원확충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화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특수교사 5명의 선발을 건의했으나, 교과부는 단 1명만 법정정원으로 배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장애학생 수를 고려해 교사를 늘리다 보면 정작 교육대상 학생수가 줄어든다. 교과부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진학할 지 미리 점칠 수 없다는 점도 교원 확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시 교육청은 특수교사 정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 대학원(특수) 졸업 등 추가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을 경우 인사·전보에서 우

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만송이 국화 향연으로 초대

27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만송이의 꽃들을 보고 있다. 가을을 상징하는 소국과 대국 등 3만 송이의 꽃으로 가득한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나라 인권위 '인화학교 조사' 생색내기

### 비례대표 의원만 참석·논의 사항 비공개도 동행 변호사 "공지영씨 조사해야" 발언 논란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소속 위원들이 27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을 찾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참석자 중 한 명이 "소설 '도가니'의 저자 공지영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정선(비례대표) 부위원장, 김옥이(〃), 이윤재(〃) 의원과 동행한 김도 변호사 등이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을 차례로 방문, 인화학교 수사진행 상황과 현황 및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당초 일정에는 김재경(경남 진주)을 위원장을 비롯해 이화수(경기 안산상록갑),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김재원 법률지원단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전 예고도 없이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이 불참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참석해 인화학교 사태 해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광주경찰청의 수사현황과 대책 보고, 당 인권위원회 의원들의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질의답변 등 사후 논의의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행한 김 변호사는 인사말에

서 그동안 수년에 걸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영화 도가니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화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고 있다. 그래서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공지영씨는 지금 중립보다는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지영씨는 소설을 쓰면서 자료 조사는 물론 피해자를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인화학교 문제를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했다"며 "공지영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방문한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연합회까지 결성한 보도방

### 女 200명 소개 8억 부당이익

### 광주경찰, 업주 무더기 적발

연합회까지 조직해 유흥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고 수익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속칭 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허가 없이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 등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직접안정법 위반)로 정모(54)씨와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여성 200여명을 노래방, 단란주점 등 215개 업소에 알선해 시간당 5000~1만원의 받

는 방법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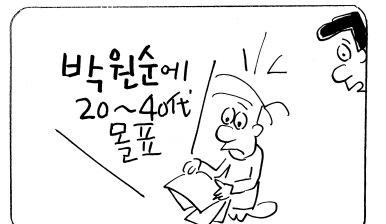
이들은 지난해 말 광주 동·서·북구에서 활동하는 19개 보도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결성했으며 정씨는 회장을, 김씨는 총무를 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1~10권역으로 영업구역을 나눠 구역내 업주들에게 연합회에서 알선하는 여성을 고용하도록 권유하고 다른 업소가 영역을 침범하면 1차 경고, 2차 미행 후 공동 협박 등 행동강령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종업원을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이었다"며 "광주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이 반지

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철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니원침 (8426)



### 프로축구 승부 조작

### 선수·브로커 2명 무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가담혐의로 기소된 선수와 브로커 가운데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김승현(28) 선수와 브로커 윤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선수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 가담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승부조작 경기가 고참 선수 위주로 진행됐고 김 선수는 장기간 부상으로 쉬고 있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료선수들과 공모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승부조작 브로커 겸 선수로 뛰었던 상무출신 김동현이 승부조작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윤씨에 대해서는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돈심부름의 내용을 묻거나 적극적으로 가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30대 男 사우나서 남성 성추행

○사우나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0대 남성의 신체를 에두르는 등 성추행한 30대 남성과, 화를 참지 못해 집기를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나란히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4)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광주 한 사우나에서 B(27)씨의 '중요 부위'를 에두르고, B씨는 격분해 목침을 휘둘렀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감자” 작가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

### 서울고법 판결

‘감자’, ‘배파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1900~1951년)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서울고법이 27일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판장 윤 부장판사)는 이날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41~1942년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제로 하고 있다”며 “김동인의 역사적 비중이나 영향력과는 별개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 창작의 특성상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소송을 썼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 경찰, ‘나는 꿈수다’ 수사 착수

### ‘나후보 1억 피부샵’ 이용섭 의원 등 피소

인기 인터넷방송인 ‘나는 꿈수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24일 판지일보 총수 김여준씨 등 7명이 인터넷방송인 ‘나는 꿈수다’와 각종 브리핑 자리에서 ‘나 후보가 1억원 짜리 피부샵을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 중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야당 의원, 주간지 기자, 시사평론가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당일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나 ‘선거 중립성 차원에서 긴급한 사안만 즉시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고발 내용을 수사하려면 루머가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 후보에 대한 ‘1억원 피부샵’ 루머가 사실인지 여부부터 검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조카사위 빚 보증 해결해”

### 언니 손자 유괴 40대 조사

목포경찰은 27일 자신이 보증을 섰던 빚을 갚지 않느다며 조카 손자를 유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A(여·47)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목포시 북항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8개월 된 언니의 손자

를 데리고 나간 뒤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손자와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니의 사위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을 섰으나 빚을 갚지 않자 언니의 집으로 파지러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납치하려 한 게 아니고 잠시 데리고 나갔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 인기

##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                             |                                  |
|-----------------------------|----------------------------------|
|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
|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함(조명의 질적향상) |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
| 3. 최대 50~100%의 조도감상         | 7. 친환경재질(PP, 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
|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 8. 번개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

형광등용

디온라이트용

삼파장용

에코반사캡

DIV세트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 (주)우림네트웍스

# 062-251-9792

www.donbandi.com